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미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대 마련

도,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전북테크노파크와 협력체계 구축
전북 정착형 인재양성 거점 설치 등 협력... 지역산업 생태계 확장

전북도와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센터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이차전지 등 전북의 미래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전북도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황준석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센터장 이규택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미래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도는 최근 새만금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 등 초격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북을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 부센터장을 역임한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과의 인연을 계기로 센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전북 정착형 글로벌 인력양성 거점 설치 및 프로그램 공동운영, △새만금 입주기업 및 전북 주요기업 대상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 △공공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 등이다
전북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IC화하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차전지 등 전북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도 서울대학교 글로벌 R&DB센터·전북TP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황준석 서울대 글로벌 R&DB센터장(왼쪽), 이규택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오른쪽)이 참석해 협약식을 갖고 있다.

등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산업 기반이 빠르게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투자 기업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

발을 촉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전북에 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연구기관 집적화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의 역량이 전북의 혁신연구 역량을 더욱 배가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가 주최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간담회가 26일 서울 논현동에서 열린 가운데 김흥국 재경도민회장,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정운천·김의겸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한법재판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으로'

수도권지원위, 전북 주요인사들과 유치 간담회 열어
참석 인사들 "전북 신산업 성장 미래 달려... 힘 보탬 것"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북 주요인사가 함께 모였다.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위원장 김흥국 재경도민회장)가 주최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간담회가 26일 서울 논현동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김흥국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 위원장(재경도민회장),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운천·김의겸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이강국 전 한법재판소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모여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는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 과정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경과 보고와 주요 인사들의 특화단지 유치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다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전북의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5월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수도권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전북의 주요 인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전북인의 열망을 담아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국 전북 이차전지 유치 수도권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북의 미래산업이 첨단전략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로 다변화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며, "재경도민회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 화답했다.
함께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500만 전북인 결

의대회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전북 신산업 성장의 미래가 달린 만큼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집중해 특화단지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월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신청 이후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특화단지 신청자인 새만금국가산업단지는 LG화학 대주전자재료, 엔켐 등 최근 3년간 총 28개사 7조원 규모의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도는 이러한 폭발적인 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결정된다. /김재훈 기자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단일업체 응찰로 이달 유찰... 도교육청, 오늘 추진 결과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880여 억원에 달하는 스마트기기 사업예산에 따른 수의 계약방식이나 경쟁입찰이나였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량평가에 사업수행실적 등을 반영하고, 정성평가에는 하자보수 등을 명목으로 반영하는 등 안정성과 균형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 4월 7일 조달계약 요청 후 단일업체 응찰로 6월 유찰된 이 사

업의 계약 추진 결과가 27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복수업체 응찰시 조달청 계약을 진행하고, 단일업체 응찰로 유찰시에는 2차 제공 및 수의 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급적 방화 기간 중에 납품을 완료해 2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2면에 계속 /정은성 기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로 가자!